

# 창사 특집 여론조사 보고서

2015. 8. 16

# Contents

## 조사 개요

1장

- I. 조사의 목적 4.
- II. 조사 설계 5.
- III. 주요 조사 항목 6.
- IV. 조사 및 분석 표본수 7.
- V. 표본의 특성 8.

## 조사결과 분석

2장

- I. 정치현안 관련 10.
  - 1. 차기 대통령후보 선호도 10.
  - 2. 야권 신당창당에 대한 의견 11.
  - 3. 내년 총선 지지의향 정당 12.
  - 4.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3.
- II. 전남지사·교육행정 운영관련 14.
  - 1. 이낙연 지사 도정업무 수행 평가 14.
  - 2. 가장 시급한 도내 정책과제 15.
  - 3. 장만채 교육감 교육행정업무 수행 평가 16.
  - 4. 가장 시급한 도내 교육정책 17.
- III. 경제·사회 관련 18.
  - 1. 향후 10년 후 도내 경제 전망 18.
  - 2. 가장 부족한 도내 문화관광 시설 19.
- IV. 서부권 현안 관련 18.
  - 1. 도청이전의 효과에 대한 체감도 20.
  - 2. 도청이전으로 개선된 점 21.
  - 3. 남악신도시에 가장 필요한 시설 22.
  - 4. 목포·무안·신안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 23.
  - 5. 행정구역 통합 찬/반 이유 24.
  - 6. 행정구역 통합 시도의 실패 이유 25.
  - 7.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에 대한 견해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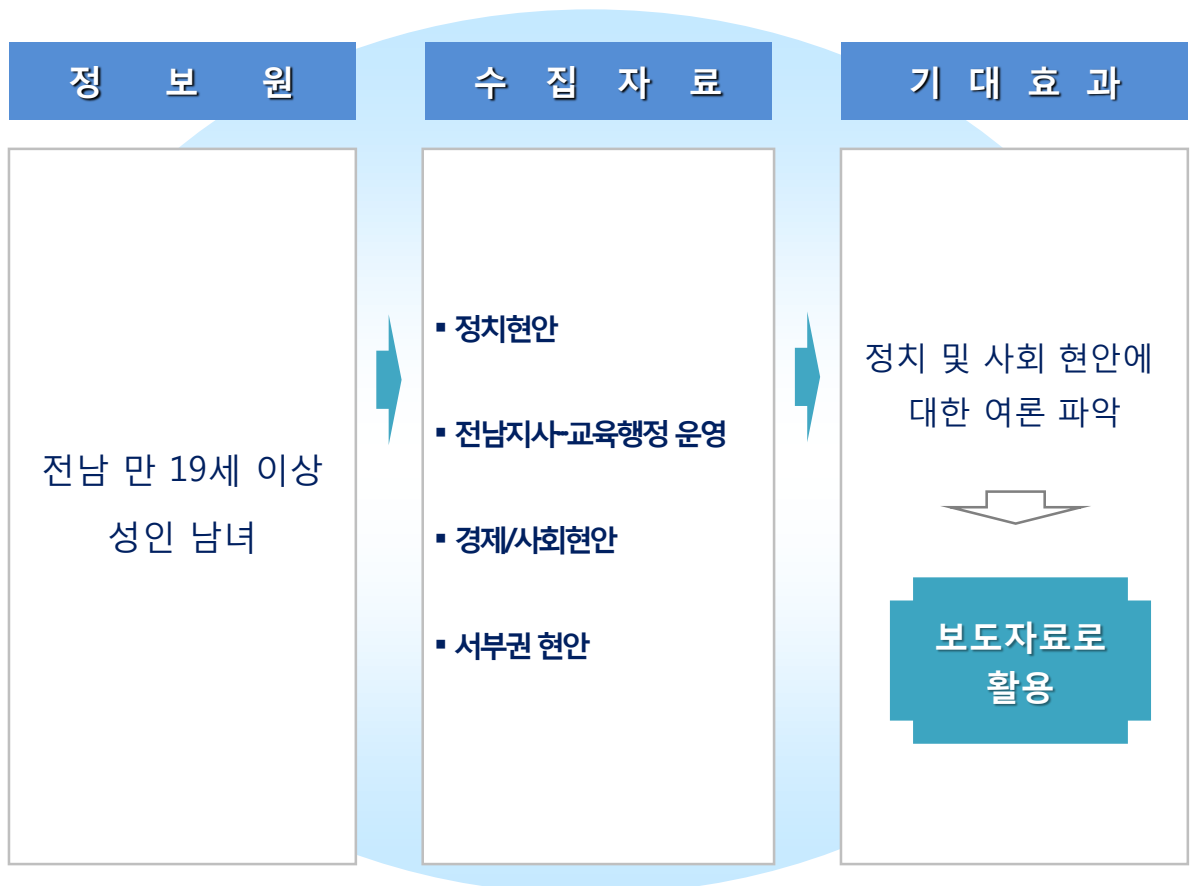
# 1장. 조사의 개요

- I**    조사의 목적
- II**    조사 설계
- III**    주요 조사 항목
- IV**    조사 및 분석 표본수
- V**    표본의 특성

# I.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목포MBC 창사특집을 맞이하여,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정치현안, 전남도내 도정 및 교육행정 운영, 경제·사회 현안 등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여, 목포MBC 보도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본 조사의 목적 및 기대효과를 흐름도(Flow-Chart)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Ⅱ. 조사 설계

조사 대상	▪ 전라남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 규모	▪ 유효표본 총 1,000명
조사 방법	▪ 임의 전화번호걸기(Random Digit Dialing)에 의한 유무선 전화를 동시에 실시하는 이중 표집틀(Dual Frame) 방식의 전화면접조사(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표본추출방법	▪ 주요 조사 대상인 전남 서부권(목포권, 서남해안권)의 응답확보를 위해, '서부권' 500표본 : '타 권역' 500표본으로 표본 배분(Boost sampling)하여 조사 진행 ※ 전남 전체 결과 분석시, 권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함
오차한계	▪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 서부권 대상 문항은 ± 4.4% point
응답률	▪ 15.9% ※ 산출공식 = 조사성공건수/총 조사시도건수 ×100
조사 기간	▪ 2015년 8월 15일 (1일간)
조사 기관	▪ (주) 코리아리서치센터

# Ⅲ. 주요 조사 항목

## 정치 현안 관련

- 차기 대통령후보 선호도 (문1)
- 야권 신당창당에 대한 의견 (문2)
- 내년 총선 지지의향 정당 (문3)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문4)

## 전남지사·교육행정 운영 관련

- 이낙연 지사 도정업무 수행 평가 (문5)
- 가장 시급한 도내 정책과제 (문6)
- 장만채 교육감 교육행정 업무 수행 평가 (문7)
- 가장 시급한 도내 교육정책 (문8)

## 전남지사·교육행정 운영 관련

- 향후 10년 후 도내 경제 전망 (문9)
- 가장 부족한 도내 문화관광 시설 (문10)

## 경제·사회 현안 관련

- 도청이전의 효과 체감도 (문11)
- 도청이전으로 개선된 점 (문12)
- 남약신도시에 가장 필요한 시설 (문13)
- 목포무안신안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 (문14)
- 행정구역 통합 찬/반 이유 (문14-1, 문14-2)
- 행정구역 통합 시도의 실패 이유 (문15)
-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에 대한 의견 (문16)

※ 문11~16번은 해당 질문에 대한 지역별 관여 정도를 고려하여, 서부권(목포권, 서남해안권)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함

## IV. 조사 및 분석 표본수

구분	실제 조사 표본수	전남지역 전체 분석 표본수
<b>합계</b>	<b>1,000</b>	<b>1,000</b>
목포권	253	187
서남해안권	247	183
중부권	134	167
동부(순천고흥권)	175	221
동부(여수광양권)	191	242

※ 통계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서부권(목포권, 서남해안권)을 500표본 임의할당하여 조사를 수행하되, 통계결과는 전남지역 전체 주민등록인구 구성비(성/연령/지역)에 맞게 가중치(Weight)를 반영하여 산출함.

## V. 표본의 특성 (분석 표본 기준)

			사례수	%			
전체			(1,000)	100.0			
성별	남	성	(495)	49.5			
	여	성	(505)	50.5			
연령별	1 9 - 2 9	세	(146)	14.6			
	3 0	대	(146)	14.6			
	4 0	대	(190)	19.0			
	5 0	대	(195)	19.5			
	6 0	세 이상	(323)	32.3			
지역별1	목	포	권	(187)	18.7		
	서	남	해	안	권	(183)	18.3
	중	부	권	(167)	16.7		
	동부 (순천고흥권)			(221)	22.1		
	동부 (여수광양권)			(242)	24.2		
지역별	서	부	권	(370)	37.0		
	중	부	권	(167)	16.7		
	동	부	권	(463)	46.3		
직업별	농 / 임 / 어 / 축	산	(168)	16.8			
	자	영	업	(129)	12.9		
	블	루	칼	라	(117)	11.7	
	화	이	트	칼	라	(182)	18.2
	주		부	(225)	22.5		
	학		생	(90)	9.0		
	무	직 / 기	타	(81)	8.1		
	모	름 / 무	응	답	(8)	0.8	
학력별	중	졸	이	하	(269)	26.9	
	고		졸	(271)	27.1		
	대	재	이	상	(441)	44.1	
	모	름 / 무	응	답	(19)	1.9	

### ※ 전라남도 5개 권역

- 목포권 :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 서남해안권 : 함평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 중부권 :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영광군, 장성군
- 동부(순천고흥권) : 순천시,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 동부(여수광양권) :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 2장. 조사결과 분석

- I** 정치현안 관련
- II** 전남지사·교육행정 운영 관련
- III** 경제·사회현안 관련
- III** 서부권 현안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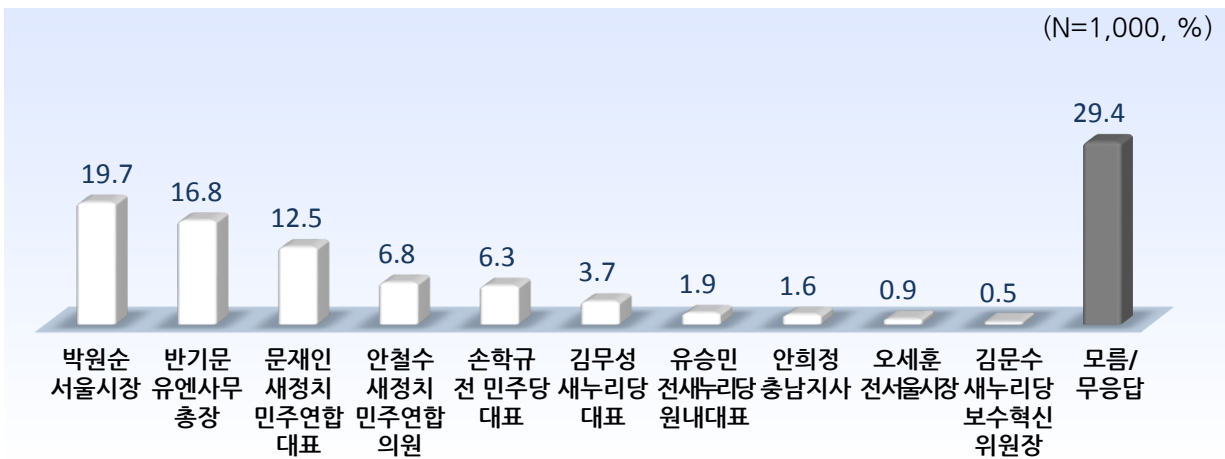
# I. 정치현안 관련

## 1.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꼽은 응답이 19.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16.8%),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12.5%) 등의 순으로 조사됨.

☞ MERS(중동호흡기 증후군) 이슈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높은 선호를 보임. 전남지역 내에서는 범야권 후보로서 차기 대권의 대안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풀이됨.

- ✓ '박원순 서울시장'을 꼽은 응답은 40대(27.2%)에서 특히 높았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60세 이상(20.5%), 목포권(20.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9-29세(16.4%) 및 30대(24.6%), 서남해안권(16.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박원순 서울시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	모름/무응답	
<b>전체</b>	<b>(1,000)</b>	<b>19.7</b>	<b>16.8</b>	<b>12.5</b>	<b>6.8</b>	<b>6.3</b>	<b>3.7</b>	<b>1.9</b>	<b>1.6</b>	<b>0.9</b>	<b>0.5</b>	<b>29.4</b>	
연령별	19-29세	(146)	17.8	17.0	16.4	7.9	0.9	2.4	1.6	2.9	2.1	0.0	31.1
	30대	(146)	18.6	13.1	24.6	8.9	7.9	3.7	2.3	0.0	1.8	0.0	19.2
	40대	(190)	27.2	13.3	10.7	6.0	7.4	2.2	1.5	2.0	0.7	0.0	29.1
	50대	(195)	21.6	16.7	10.6	4.0	8.7	4.0	3.9	2.7	0.8	1.1	25.9
	60세 이상	(323)	15.5	20.5	7.5	7.4	5.8	5.1	0.9	0.9	0.2	0.9	35.5
지역별	목포권	(187)	21.0	20.1	13.4	5.8	5.4	4.4	0.7	0.4	1.7	0.0	27.2
	서남해안권	(183)	21.7	13.3	16.7	5.1	6.0	2.4	1.8	0.8	1.1	0.4	30.8
	중부권	(167)	19.1	15.1	9.7	7.4	6.3	1.2	1.9	2.7	1.8	0.6	34.2
	동부 (순천고흥권)	(221)	21.0	19.0	7.4	8.7	6.3	6.2	1.2	1.8	0.5	0.9	27.0
	동부 (여수광양권)	(242)	16.3	16.0	15.3	6.6	7.1	3.7	3.5	2.2	0.0	0.5	28.9

# I. 정치현안 관련

## 2. 야권 신당창당에 대한 의견

- 야권의 신당 창당에 관한 의견으로, '전국적인 차원의 신당창당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1.3%로 가장 많았으며, '어떤 형태로든 신당창당에 반대한다'는 20.4%, '호남중심 신당창당이 바람직하다'는 13.4%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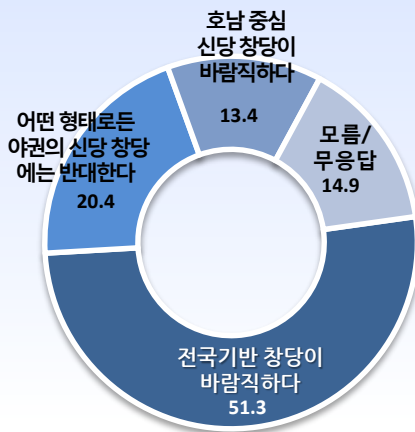
☞ 호남권 중심 지역정당보다는 전국적 지지를 얻는 신당 창당을 원하는 것으로 풀이됨.

✓ '전국적인 차원의 신당창당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대(58.1%), 목포권(55.0%) 및 동부(순천고흥권)(56.7%), 자영업(64.0%), 화이트칼라(59.2%) 계층에서 높은 반면,

'야권신당 창당에 반대한다'는 40대(24.8%) 및 50대(25.5%), 목포권(24.0%), 블루칼라(26.2%) 및 화이트칼라(25.9%) 계층에서 비교적 높음.

'호남중심 창당이 바람직하다'는 60세 이상(18.4%), 서남해안권(16.6%), 농/임/어/축산(17.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N=1,000, %)



구분	사례수	전국기반 창당이 바람직하다	어떤 형태로든 야권의 신당 창당에는 반대한다	호남중심 신당창당이 바람직하다	모름/무응답	
<b>전체</b>	<b>(1,000)</b>	<b>51.3</b>	<b>20.4</b>	<b>13.4</b>	<b>14.9</b>	
연령별	19-29세	(146)	53.0	14.3	11.6	21.1
	30대	(146)	58.1	20.5	13.1	8.3
	40대	(190)	54.0	24.8	10.6	10.6
	50대	(195)	55.6	25.5	9.6	9.4
	60세 이상	(323)	43.3	17.4	18.4	20.9
지역별	목포권	(187)	55.0	24.0	12.0	8.9
	서남해안권	(183)	50.1	18.5	16.6	14.8
	중부권	(167)	46.8	19.7	16.1	17.4
	동부(순천고흥권)	(221)	56.7	15.9	12.2	15.2
	동부(여수광양권)	(242)	47.5	23.6	11.4	17.5
직업별	농/임/어/축산	(168)	46.0	22.7	17.9	13.4
	자영업	(129)	64.0	15.7	13.8	6.5
	블루칼라	(117)	44.8	26.2	13.6	15.4
	화이트칼라	(182)	59.2	25.9	6.7	8.1
	주부	(225)	45.0	16.8	14.7	23.5
	학생	(90)	52.5	13.6	12.7	21.1
	무직/기타	(81)	51.4	19.2	14.7	14.7
	모름/무응답	(8)	37.3	27.0	20.7	15.0

# I. 정치현안 관련

## 3. 내년 총선 지지의향 정당

- 내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할 지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가 43.1%로 가장 높았고, '야권신당' 17.6%, '새누리당' 13.0% 순으로 조사됨.
- 신당창당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으나, 신당의 구체적인 형태가 보이지 않는 현 시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가 여전히 높음.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의향은, 19-29세(47.4%)와 30대(49.9%), 서남해안권 거주자(55.3%), 학생(59.6%) 계층에서 높았으며, '야권신당'은 40대(23.2%)와 50대(27.4%), 자영업(36.4%), 화이트칼라(21.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N=1,000, %)



구분	사례수	새정치민주연합	야권신당	새누리당	정의당	기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b>전체</b>	<b>(1,000)</b>	<b>43.1</b>	<b>17.6</b>	<b>13.0</b>	<b>2.8</b>	<b>1.3</b>	<b>22.2</b>	
연령별	19-29세	(146)	47.4	6.0	17.7	1.6	0.0	27.3
	30대	(146)	49.9	10.7	10.0	4.8	2.7	21.9
	40대	(190)	41.8	23.2	6.1	5.0	2.6	21.4
	50대	(195)	36.5	27.4	9.0	2.8	2.2	22.2
	60세 이상	(323)	42.9	16.7	18.7	1.0	0.0	20.6
지역별	목포권	(187)	38.3	18.2	13.6	4.7	0.3	24.9
	서남해안권	(183)	55.3	17.3	10.8	1.4	0.7	14.4
	중부권	(167)	40.5	15.1	13.3	1.4	1.8	27.9
	동부(순천고흥권)	(221)	39.4	17.4	16.8	4.1	1.8	20.6
	동부(여수광양권)	(242)	42.9	19.2	10.4	2.1	1.8	23.6
직업별	농/임/어/축산	(168)	45.1	17.3	15.4	2.2	0.0	20.0
	자영업	(129)	39.9	36.4	5.3	2.0	3.1	13.3
	블루칼라	(117)	41.7	13.0	15.8	3.7	1.8	24.0
	화이트칼라	(182)	41.1	21.9	6.3	3.1	1.5	26.1
	주부	(225)	42.3	10.6	15.7	4.2	1.9	25.4
	학생	(90)	59.6	2.5	17.8	0.0	0.0	20.1
	무직/기타	(81)	34.8	19.7	19.6	2.5	0.0	23.4
	모름/무응답	(8)	42.9	33.6	0.0	0.0	0.0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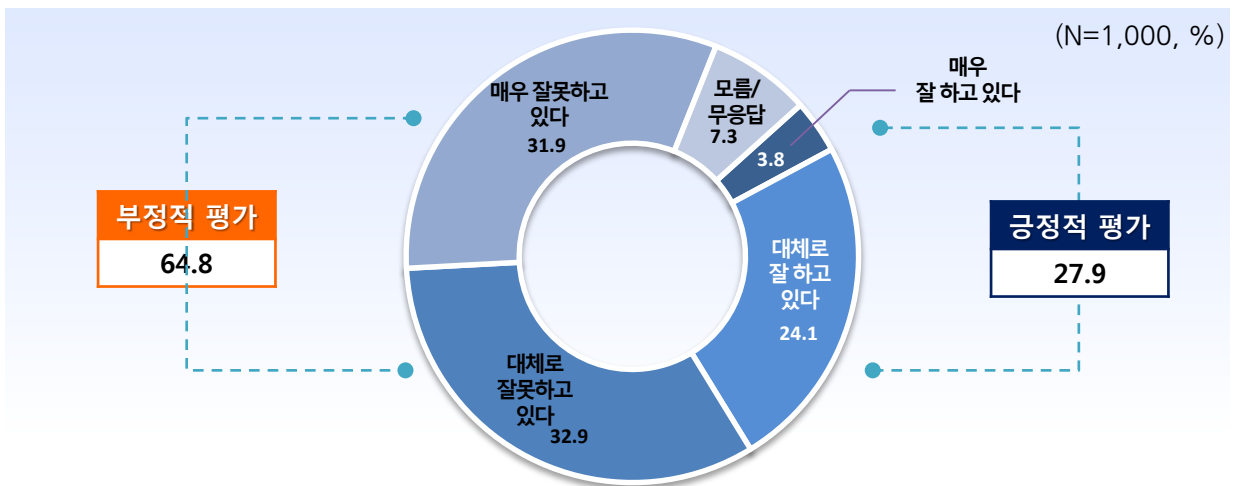
# I. 정치현안 관련

## 4.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매우+다소)는 부정적 평가는 64.8%로 나타난 반면, '잘하고 있다'(매우+다소)는 긍정적 평가는 27.9%에 불과함.

☞ 메르스확산 이후, 노동개혁 등 4대개혁 추진의 뜻을 밝힌 대국민담화 발표 등에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미만임.

✓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40대 이하(19-29세 77.7%, 30대 84.6%, 40대 79.4%), 목포권(72.4%), 자영업(76.6%), 화이트칼라(85.7%), 학생(82.4%) 계층에서 높으며, 긍정적 평가는 60세 이상(48.0%), 농/임/어/축산업(37.2%), 주부(37.2%)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모름/무응답	
<b>전체</b>	<b>(1,000)</b>	<b>27.9</b>	<b>64.8</b>	<b>7.3</b>	
연령별	19-29세	(146)	16.9	77.7	5.4
	30대	(146)	11.9	84.6	3.4
	40대	(190)	16.6	79.4	4.0
	50대	(195)	25.8	66.5	7.7
	60세 이상	(323)	48.0	40.3	11.6
지역별	목포권	(187)	20.3	72.4	7.3
	서남해안권	(183)	35.0	56.3	8.7
	중부권	(167)	27.0	60.8	12.2
	동부(순천고흥권)	(221)	30.5	65.3	4.2
	동부(여수광양권)	(242)	26.7	67.7	5.7
직업별	농/임/어/축산	(168)	37.2	47.7	15.1
	자영업	(129)	17.6	76.6	5.8
	블루칼라	(117)	26.9	67.3	5.8
	화이트칼라	(182)	13.4	85.7	0.9
	주부	(225)	37.2	54.7	8.1
	학생	(90)	12.3	82.4	5.3
	무직/기타	(81)	50.9	39.9	9.3
	모름/무응답	(8)	20.2	64.6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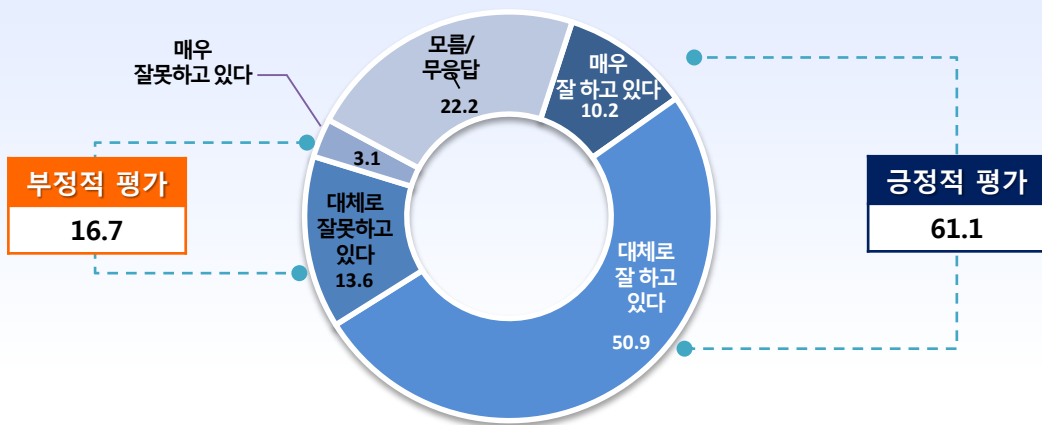
## Ⅱ. 전남지사·교육행정 운영 관련

### 1. 이낙연 지사 도정업무 수행 평가

- 이낙연 지사의 도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다소)는 긍정적 평가는 61.1%로이며, '잘못하고 있다'(매우+다소)는 부정적 평가는 16.7%로 조사됨.

✓ 이낙연 지사 도정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40대 이상(40대 64.7%, 50대 67.6%, 60세 이상 68.7%) 중부권 65.6%, 농/임/어/축산(75.6%), 자영업(65.6%), 화이트칼라(69.7%)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30대 이하(19-29세 23.9%, 30대 25.0%), 목포권(23.0%), 자영업(20.6%), 학생(26.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N=1,000, %)



구분	사례수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모름/무응답	
<b>전체</b>	<b>(1,000)</b>	<b>61.1</b>	<b>16.7</b>	<b>22.2</b>	
연령별	19-29세	(146)	40.0	23.9	36.1
	30대	(146)	51.9	25.0	23.1
	40대	(190)	64.7	19.6	15.6
	50대	(195)	67.6	17.6	14.8
	60세 이상	(323)	68.7	7.4	23.8
지역별	목포권	(187)	60.4	23.0	16.6
	서남해안권	(183)	62.9	14.6	22.5
	중부권	(167)	65.6	11.6	22.8
	동부(순천고흥권)	(221)	60.2	18.0	21.8
	동부(여수광양권)	(242)	58.1	15.8	26.2
직업별	농/임/어/축산	(168)	75.6	7.3	17.2
	자영업	(129)	65.6	20.6	13.8
	블루칼라	(117)	55.2	19.7	25.1
	화이트칼라	(182)	69.7	17.7	12.5
	주부	(225)	54.7	17.8	27.5
	학생	(90)	29.8	26.3	44.0
	무직/기타	(81)	65.8	10.3	23.9
	모름/무응답	(8)	57.4	14.5	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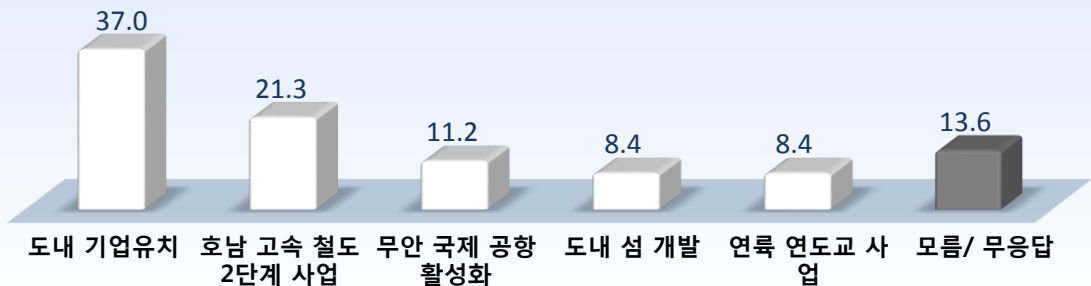
## Ⅱ. 전남지사·교육행정 운영 관련

### 2. 가장 시급한 도내 정책과제

- 전남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도내 기업유치'를 꼽은 응답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21.3%), '무안국제 공항 활성화'(11.2%)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기업유치로 인한 경기부양을 바라는 전남도민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50대 이하는 '도내 기업유치'(19-29세 36.0%, 30대 50.9%, 40대 47.7%, 50대 43.2%)에 가장 높은 응답이 나타난 반면, 60세 이상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29.1%)을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응답함.
- 직업별로, '도내 기업유치'는 자영업(42.3%), 블루칼라(42.9%), 화이트칼라(53.8%), 학생(32.8%) 계층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농/임/어/축산(28.6%) 종사자, 주부(28.3%) 계층에서 가장 높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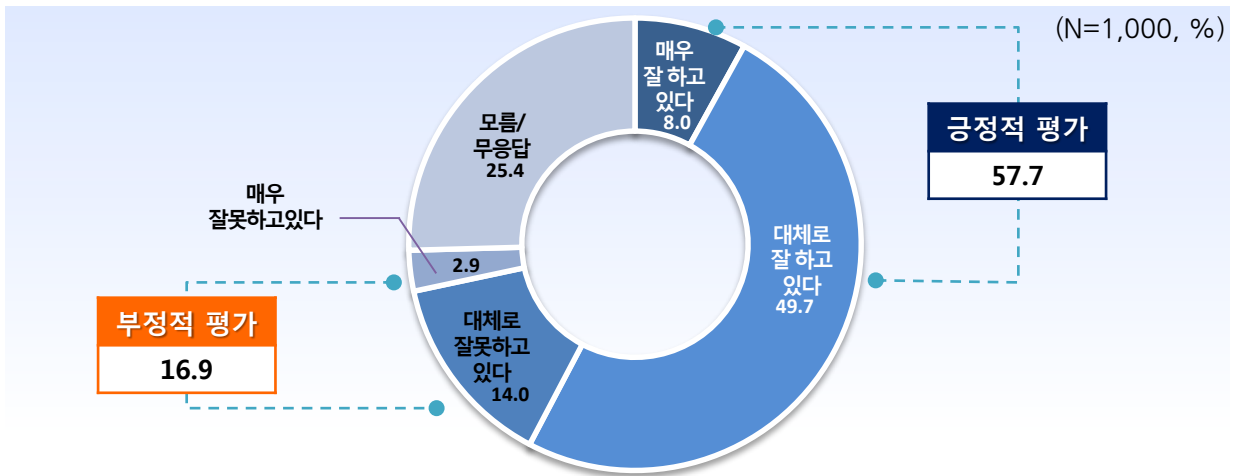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도내기업유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도내섬 개발	연륙연도교 사업	모름/무응답	
<b>전체</b>	<b>(1,000)</b>	<b>37.0</b>	<b>21.3</b>	<b>11.2</b>	<b>8.4</b>	<b>8.4</b>	<b>13.6</b>	
연령별	19-29세	(146)	36.0	21.9	12.0	7.8	4.8	17.5
	30대	(146)	50.9	15.7	13.3	10.3	5.9	3.8
	40대	(190)	47.7	16.7	9.7	7.2	13.0	5.6
	50대	(195)	43.2	16.5	8.0	10.0	10.3	11.9
	60세 이상	(323)	21.1	29.1	12.8	7.6	7.3	22.1
지역별	목포권	(187)	39.6	17.4	17.3	7.2	10.9	7.5
	서남해안권	(183)	32.7	24.8	12.4	7.2	8.2	14.8
	중부권	(167)	37.2	20.8	12.3	6.4	2.6	20.7
	동부(순천고흥권)	(221)	37.0	27.5	7.6	8.0	7.0	12.9
	동부(여수광양권)	(242)	38.0	16.4	8.3	12.0	11.9	13.3
직업별	농/임/어/축산	(168)	26.5	28.6	12.3	6.0	10.1	16.4
	자영업	(129)	42.3	11.2	12.1	11.7	16.6	6.1
	블루칼라	(117)	42.9	16.9	13.8	7.2	8.3	10.9
	화이트칼라	(182)	53.8	17.1	11.0	6.9	7.2	4.0
	주부	(225)	27.2	28.3	6.7	9.4	4.1	24.2
	학생	(90)	32.8	15.1	15.7	11.8	7.8	16.7
	무직/기타	(81)	33.9	27.3	10.6	7.6	7.3	13.3
	모름/무응답	(8)	59.1	0.0	25.5	0.0	7.7	7.7

## Ⅱ. 전남지사·교육행정 운영 관련

### 3. 장만채 교육감의 교육행정 업무 수행 평가

- 장만채 교육감의 교육행정업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다소)는 긍정적 평가는 57.7%로, '잘못하고 있다'(매우+다소)는 부정적 평가(16.9%) 보다 높게 나타남.

- 장만채 교육감의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0대(65.9%), 동부(여수광양권)(62.2%), 자영업(64.5%), 블루칼라(61.6%), 화이트칼라(64.1%) 계층에서 높은 반면, '부정적 평가'는 19-29세(19.8%), 목포권(20.5%), 학생(24.0%)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모름/무응답
<b>전체</b>		<b>(1,000)</b>	<b>57.7</b>	<b>16.9</b>	<b>25.4</b>
연령별	19-29세	(146)	56.0	19.8	24.3
	30대	(146)	59.8	19.4	20.8
	40대	(190)	65.9	14.8	19.3
	50대	(195)	60.3	19.6	20.1
	60세 이상	(323)	51.2	13.9	34.9
지역별	목포권	(187)	56.8	20.5	22.6
	서남해안권	(183)	52.7	17.8	29.4
	중부권	(167)	55.4	11.9	32.7
	동부(순천고흥권)	(221)	59.4	17.5	23.1
	동부(여수광양권)	(242)	62.2	16.2	21.6
직업별	농/임/어/축산	(168)	52.4	13.0	34.6
	자영업	(129)	64.5	19.0	16.5
	블루칼라	(117)	61.6	14.9	23.5
	화이트칼라	(182)	64.1	18.4	17.5
	주부	(225)	54.3	16.4	29.3
	학생	(90)	51.7	24.0	24.4
	무직/기타	(81)	55.1	13.9	31.0
	모름/무응답	(8)	49.9	20.6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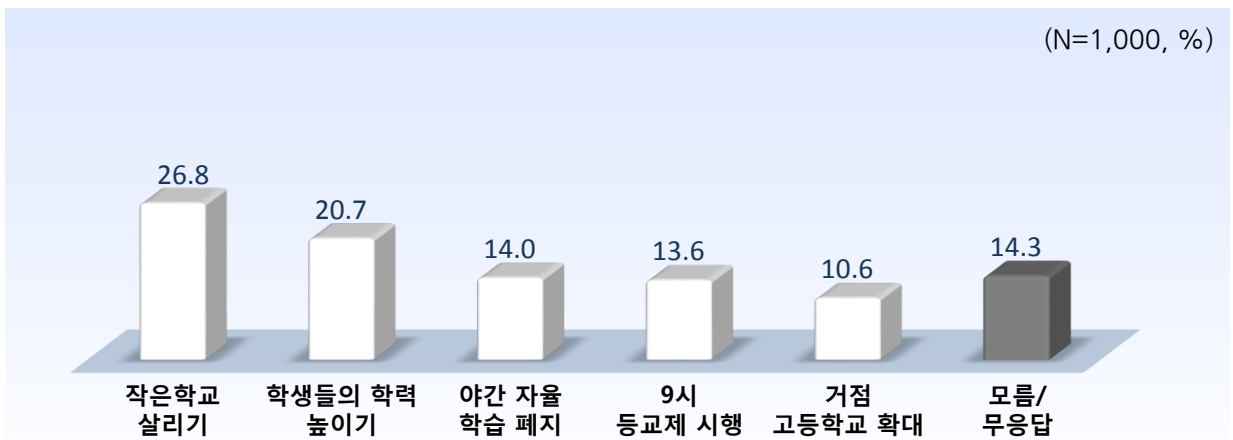


## Ⅱ. 전남지사·교육행정 운영 관련

### 4. 가장 시급한 도내 교육정책

- 전남도내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26.8%)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생들의 학력 높이기'(20.7%), '야간 자율학습 폐지'(14.0%), '9시 등교제 시행'(13.6%), '거점고등학교 확대'(10.6%) 순으로 나타남.
- 전남지역내 소규모 학교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작은 학교 살리기'가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은, 19-29세(29.4%), 서남해안권(31.2%), 블루칼라(30.6%) 계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됨.



구분		사례수	작은학교 살리기	학생들의 학력 높이기	야간 자율 학습 폐지	9시 등교제 시행	거점 고등학교 확대	모름/무응답
<b>전체</b>		<b>(1,000)</b>	<b>26.8</b>	<b>20.7</b>	<b>14.0</b>	<b>13.6</b>	<b>10.6</b>	<b>14.3</b>
연령별	19-29세	(146)	29.4	11.9	18.2	25.3	9.5	5.7
	30대	(146)	29.1	16.9	17.0	16.4	14.4	6.2
	40대	(190)	25.8	22.7	20.3	12.1	12.3	6.8
	50대	(195)	29.0	22.5	10.2	13.1	10.4	14.8
	60세 이상	(323)	23.8	24.2	9.4	8.2	8.4	26.1
지역별	목포권	(187)	28.4	16.7	12.8	15.7	14.2	12.2
	서남해안권	(183)	31.2	22.5	6.3	10.0	10.9	19.1
	중부권	(167)	22.2	23.3	15.8	14.4	7.7	16.6
	동부(순천고흥권)	(221)	25.9	20.1	20.0	12.8	7.5	13.7
	동부(여수광양권)	(242)	26.1	21.3	14.1	14.9	12.2	11.4
직업별	농/임/어/축산	(168)	26.4	25.0	9.6	7.7	8.3	23.1
	자영업	(129)	25.7	23.8	12.4	19.0	10.8	8.3
	블루칼라	(117)	30.6	14.0	21.7	14.9	13.9	4.9
	화이트칼라	(182)	27.1	24.1	13.3	10.4	16.4	8.7
	주부	(225)	23.7	23.4	11.6	13.0	7.4	21.0
	학생	(90)	28.3	8.9	20.7	26.9	10.8	4.5
	무직/기타	(81)	29.4	15.9	15.4	11.2	5.9	22.3
	모름/무응답	(8)	30.2	12.5	14.5	0.0	9.1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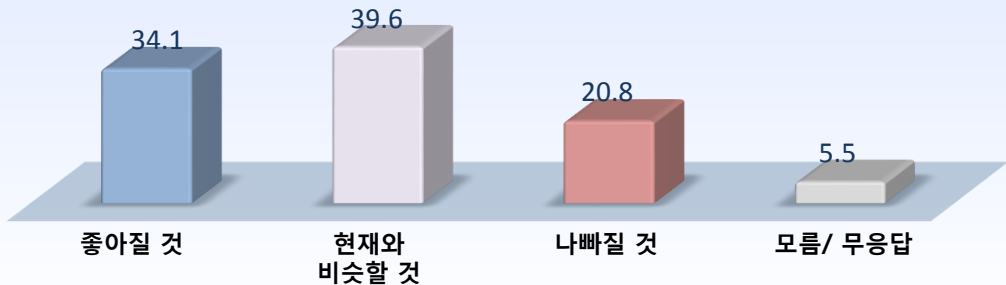
# Ⅲ. 경제·사회현안 관련

## 1. 향후 10년 후 도내 경제 전망

- 전남 지역경제가 향후 10년 후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은 결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39.6%)이 가장 많은 가운데,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34.1%)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20.8%)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
- 지역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남도민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60세 이상(45.5%), 동부(여수광양권) (42.4%), 농/임/어/축산(40.7%) 종사자, 블루칼라(39.6%), 주부(42.2%) 계층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50대(36.2%), 목포권(26.2%), 서남해안권(24.8%), 자영업(29.7%), 화이트칼라(27.0%)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N=1,000, %)



구분	사례수	좋아질 것	현재와 비슷할 것	나빠질 것	모름/무응답	
<b>전체</b>	<b>(1,000)</b>	<b>34.1</b>	<b>39.6</b>	<b>20.8</b>	<b>5.5</b>	
연령별	19-29세	(146)	37.2	49.7	12.3	0.9
	30대	(146)	25.8	48.1	24.7	1.4
	40대	(190)	19.8	50.3	27.4	2.6
	50대	(195)	33.1	38.7	26.2	2.0
	60세 이상	(323)	45.5	25.5	15.9	13.2
지역별	목포권	(187)	27.5	41.7	26.2	4.6
	서남해안권	(183)	29.3	36.8	24.8	9.1
	중부권	(167)	33.7	38.3	20.8	7.3
	동부(순천고흥권)	(221)	34.9	40.9	21.8	2.4
	동부(여수광양권)	(242)	42.4	40.1	12.7	4.9
직업별	농/임/어/축산	(168)	40.7	27.4	22.0	9.9
	자영업	(129)	23.8	45.4	29.7	1.0
	블루칼라	(117)	39.6	45.1	13.3	2.0
	화이트칼라	(182)	23.0	49.6	27.0	0.5
	주부	(225)	42.2	32.8	17.4	7.7
	학생	(90)	33.4	51.2	15.4	0.0
	무직/기타	(81)	33.9	28.9	18.9	18.3
	모름/무응답	(8)	15.3	70.2	0.0	14.5

# Ⅲ. 경제·사회현안 관련

## 2. 가장 부족한 도내 문화관광 시설

- 전남도내 가장 부족한 문화관광 시설로, '놀이시설'이 31.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숙박시설'(22.8%), '면세점'(18.1%), '카지노'(4.6%)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족한 시설이 없다'는 의견은 8.7%로 조사됨.

☞ 여가활동을 위한 '놀이시설'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게 나타남.

- ✓ '놀이시설'을 꼽은 응답은, 19-29세(47.1%)와 30대(55.2%), 목포권(37.4%), 블루칼라(38.4%), 화이트칼라(42.3%), 학생(53.3%) 계층에서 높음.
- ✓ '숙박시설'은 서남해안권(27.5%)과 중부권(29.4%)에서 상대적 높음.

(N=1,000, %)



구분		사례수	놀이시설	숙박시설	면세점	부족한 시설이 없다	카지노	모름/무응답
전체		(1,000)	31.7	22.8	18.1	8.7	4.6	14.1
연령별	19-29세	(146)	47.1	12.2	22.8	10.6	0.7	6.7
	30대	(146)	55.2	9.7	18.5	4.6	4.4	7.6
	40대	(190)	38.3	27.8	16.6	5.5	6.1	5.7
	50대	(195)	26.1	26.7	22.9	8.2	8.1	8.0
	60세 이상	(323)	13.6	28.2	13.9	11.8	3.5	29.1
지역별	목포권	(187)	37.4	20.1	20.6	5.8	5.4	10.8
	서남해안권	(183)	26.9	27.5	17.6	6.8	2.8	18.4
	중부권	(167)	27.7	29.4	14.7	6.5	3.1	18.5
	동부(순천고흥권)	(221)	30.6	19.7	17.5	14.8	4.0	13.5
	동부(여수광양권)	(242)	34.7	19.5	19.7	8.2	6.9	11.0
직업별	농/임/어/축산	(168)	22.1	26.8	12.1	10.2	5.6	23.1
	자영업	(129)	28.2	33.0	19.1	5.7	7.4	6.6
	블루칼라	(117)	38.4	18.1	25.5	8.5	3.7	5.8
	화이트칼라	(182)	42.3	21.9	19.1	5.5	5.6	5.5
	주부	(225)	26.7	24.6	16.9	7.5	2.2	22.3
	학생	(90)	53.3	10.7	21.6	9.9	0.0	4.4
	무직/기타	(81)	13.1	17.4	18.0	18.4	7.2	25.9
	모름/무응답	(8)	37.1	0.0	0.0	20.7	20.1	22.1

# IV. 서부권 현안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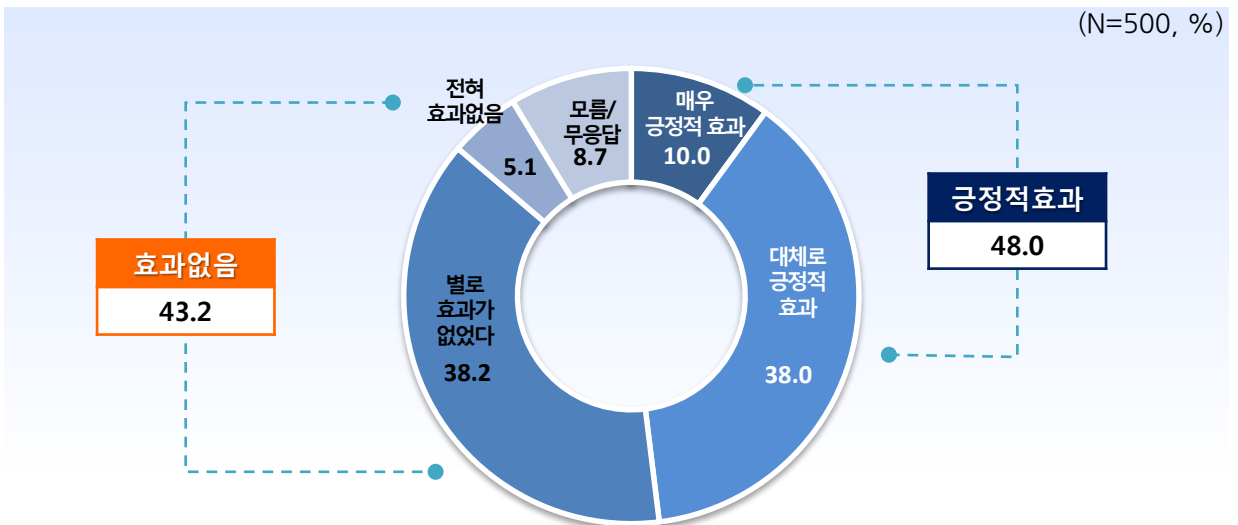
## 1. 도청이전 효과에 대한 체감도

- 서부권(목포권, 서남해안권) 응답자를 대상으로 도청이전으로 지역발전의 효과를 체감하는지 묻은 결과,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48.0%로 '효과가 없다' 43.2%에 비해 높게 조사됨.

☞ 서부권 주민의 도청이전의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는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목포권은 '긍정적 효과'(53.8%) 응답이, 서남해안권은 '효과없음'(45.7%)이 높게 나타남.

✓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40대(55.7%), 화이트칼라(62.4%)에서 높은 반면, 블루칼라(53.9%)와 학생(50.0%)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긍정적효과	효과없음	모름/무응답
<b>전체</b>	<b>(500)</b>	<b>48.0</b>	<b>43.2</b>	<b>8.7</b>
연령별	19-29세	(68) 48.4	43.6	8.0
	30대	(72) 49.3	46.1	4.5
	40대	(91) 55.7	40.3	4.1
	50대	(97) 51.4	43.4	5.3
	60세 이상	(172) 41.4	43.4	15.2
지역별	목포권	(253) 53.8	40.8	5.4
	서남해안권	(247) 42.2	45.7	12.1
직업별	농/임/어/축산	(92) 44.2	45.0	10.8
	자영업	(57) 47.2	49.8	3.0
	블루칼라	(40) 41.3	53.9	4.8
	화이트칼라	(96) 62.4	35.1	2.5
	주부	(122) 45.4	40.7	13.8
	학생	(40) 40.4	50.0	9.6
	무직/기타	(47) 45.6	39.8	14.6
	모름/무응답	(5) 52.3	47.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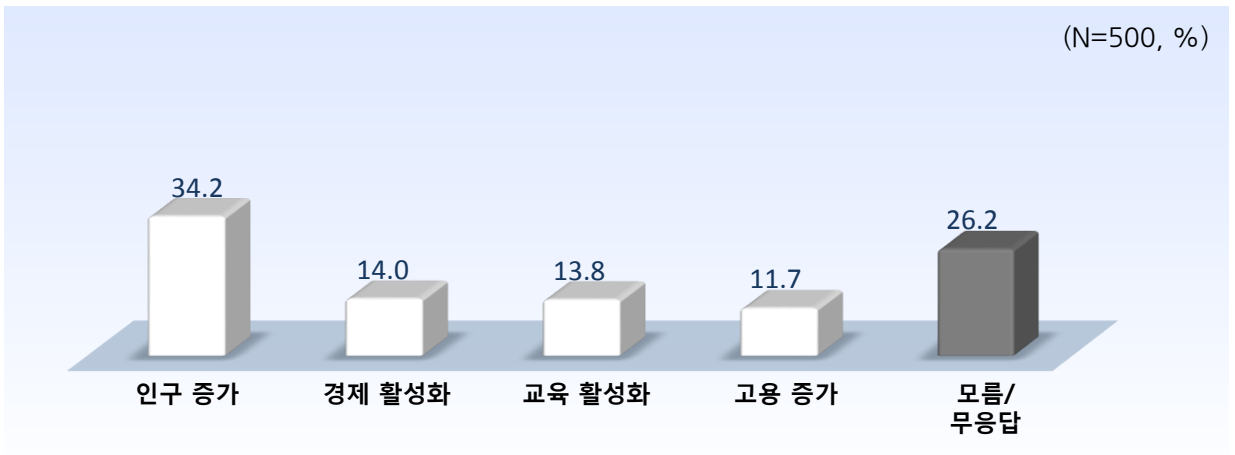
# IV. 서부권 현안 관련

## 2. 도청이전으로 개선된 점

- 도청 이전으로 서부권 지역발전에 가장 크게 개선된 점에 대해, '인구증가'가 34.3%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활성화'(14.0%), '교육활성화'(13.8%), 고용증가(11.7%) 순으로 조사됨.

☞ '인구증가'로 서부권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임.

- ✓ '인구증가'라는 응답이 거의 대부분의 계층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40대(38.0%), 자영업(42.3%), 화이트칼라(38.1%) 계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구분		사례수	인구 증가	경제 활성화	교육 활성화	고용 증가	모름/무응답
<b>전체</b>		<b>(500)</b>	<b>34.2</b>	<b>14.0</b>	<b>13.8</b>	<b>11.7</b>	<b>26.2</b>
연령별	19-29세	(68)	25.9	16.8	16.3	17.4	23.6
	30대	(72)	33.2	11.6	17.2	12.2	25.8
	40대	(91)	38.0	14.9	17.4	18.0	11.6
	50대	(97)	34.8	13.1	13.0	8.7	30.4
	60세 이상	(172)	35.6	14.0	10.0	7.6	32.8
지역별	목포권	(253)	37.1	14.5	14.9	9.3	24.2
	서남해안권	(247)	31.3	13.6	12.7	14.1	28.3
직업별	농/임/어/축산	(92)	36.3	11.0	10.9	14.0	27.8
	자영업	(57)	42.3	15.3	10.6	8.5	23.4
	블루칼라	(40)	36.2	15.0	6.8	13.2	28.8
	화이트칼라	(96)	38.1	18.0	14.4	13.9	15.7
	주부	(122)	30.4	11.9	16.1	11.0	30.7
	학생	(40)	26.2	17.2	25.3	12.6	18.7
	무직/기타	(47)	22.4	12.4	14.0	7.6	43.6
	모름/무응답	(5)	83.6	16.4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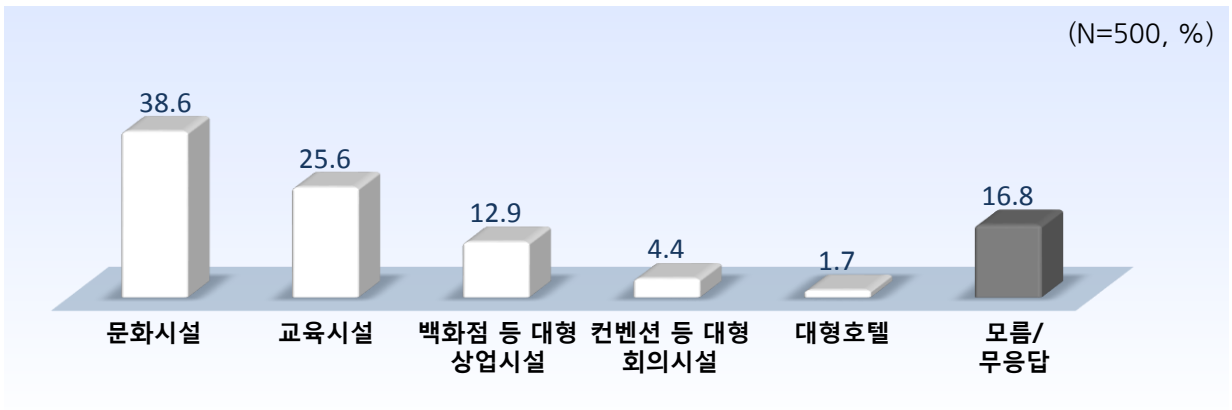
# IV. 서부권 현안 관련

## 3. 남악신도시에 가장 필요한 시설

- 무안군 일대에 조성중인 남악신도시에 가장 필요한 시설로, '문화시설'이 38.6%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교육시설'(25.6%),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12.9%)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서부권 내 문화시설 부족에 대한 여론의 표출로 풀이됨.

✓ '문화시설'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은, 40대 이하(19-29세 45.7%, 30대 51.2%, 40대 50.9%), 화이트칼라(47.1%) 계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문화시설	교육시설	백화점 등 대형 상업 시설	컨벤션 등 대형 회의 시설	대형호텔	모름/무응답
전체		(500)	38.6	25.6	12.9	4.4	1.7	16.8
연령별	19-29세	(68)	45.7	16.8	22.4	6.8	0.0	8.3
	30대	(72)	51.2	21.4	15.9	5.6	1.6	4.3
	40대	(91)	50.9	25.5	10.5	2.0	1.0	10.2
	50대	(97)	34.1	27.7	10.3	7.0	2.6	18.3
	60세 이상	(172)	26.5	29.7	10.6	2.7	2.3	28.2
지역별	목포권	(253)	37.9	29.0	15.3	3.5	0.8	13.5
	서남해안권	(247)	39.3	22.1	10.5	5.3	2.6	20.2
직업별	농/임/어/축산	(92)	42.0	22.4	10.4	2.7	1.9	20.8
	자영업	(57)	33.0	28.3	11.2	7.4	3.2	16.8
	블루칼라	(40)	36.7	34.3	16.1	6.1	0.0	6.8
	화이트칼라	(96)	47.1	26.6	14.0	4.0	0.9	7.3
	주부	(122)	35.6	25.9	10.5	4.6	1.7	21.7
	학생	(40)	50.9	17.7	27.3	4.1	0.0	0.0
	무직/기타	(47)	19.0	27.8	10.3	3.5	4.3	35.1
	모름/무응답	(5)	50.9	0.0	0.0	0.0	0.0	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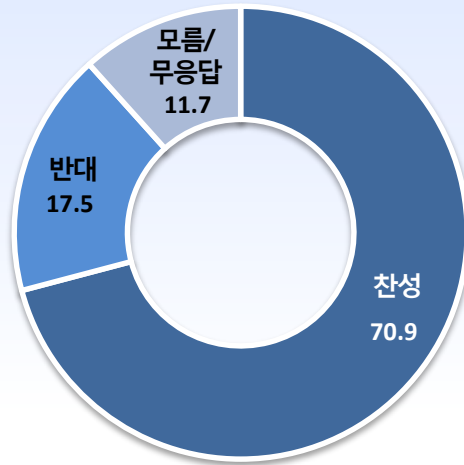
# IV. 서부권 현안 관련

## 4. 목포·무안·신안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

- 목포무안신안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70.9%로, '반대한다'(17.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됨.
- ☞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서부권주민의 이해와 공감감이 높은 것으로 보임.

- ✓ 행정구역 통합의 '찬성' 응답은, 모든 계층에서 높은 가운데, 특히 40대(74.6%)와 50대(82.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지역인 목포권에서는 찬성 78.8%, 반대 18.2%로 찬성의견이 압도적임.
- ✓ 세부 지역별 찬성 vs. 반대 비율은 목포(N=182) : 84.8% vs. 11.6%, 무안(N=51) : 59.8% vs. 40.2%, 신안(N=19) : 73.0% vs. 22.6%임.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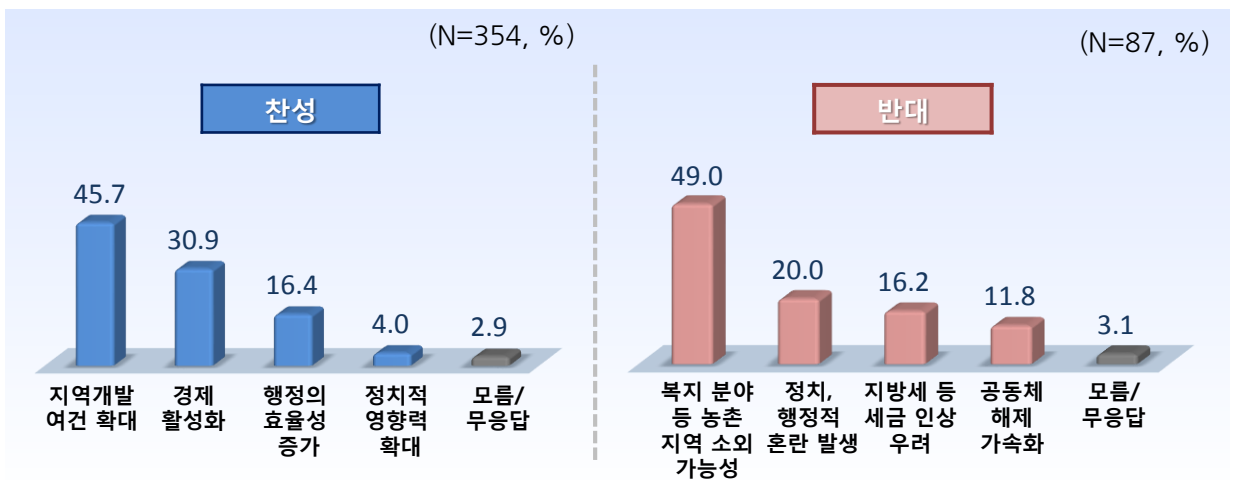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전체		(500)	70.9	17.5	11.7
연령별	19-29세	(68)	58.8	28.0	13.3
	30대	(72)	69.5	23.4	7.0
	40대	(91)	74.6	19.5	5.9
	50대	(97)	82.5	13.1	4.4
	60세 이상	(172)	67.7	12.2	20.1
지역별	목포권	(253)	78.8	18.2	2.9
	서남해안권	(247)	62.8	16.6	20.6
직업별	농/임/어/축산	(92)	69.7	20.5	9.9
	자영업	(57)	73.4	23.7	2.9
	블루칼라	(40)	78.7	10.1	11.2
	화이트칼라	(96)	72.8	21.5	5.7
	주부	(122)	71.8	8.4	19.7
	학생	(40)	59.2	32.3	8.6
	무직/기타	(47)	68.0	12.5	19.5
	모름/무응답	(5)	64.0	19.6	16.4

# IV. 서부권 현안 관련

## 5. 행정구역 통합 찬/반 이유

-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찬성(N=354)하는 이유로, '지역개발여건 확대'가 45.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활성화'(30.9%), 행정의 효율성 증가(16.4%) 등의 순으로 조사됨.
- 한편, 반대(N=87)의 이유로는, '복지분야 등 농촌지역 소외 가능성'이 49.0%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정치, 행정적 혼란 발생'(20.0%), '지방세 등 세금인상 우려'(16.2%), '공동체 해체 가속화'(11.8%)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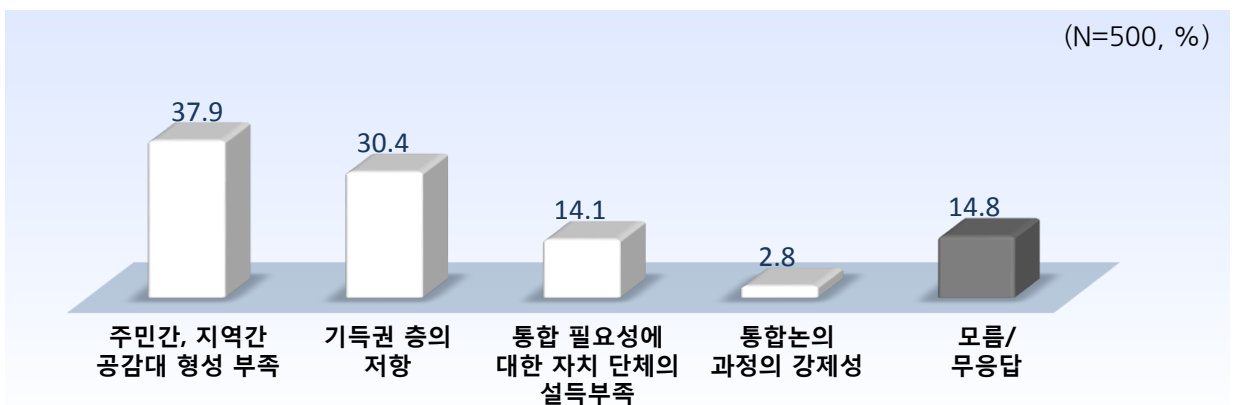




# IV. 서부권 현안 관련

## 6. 행정구역 통합 시도의 실패 이유

- 행정구역 통합 시도가 실패한 이유로, '주민간, 지역간 공감대 형성 부족'(37.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기득권층의 저항'(30.4%), '통합 필요성에 대한 자치 단체의 설득 부족'(1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사례수	주민간, 지역간 공감대 형성부족	기득권층의 저항	통합필요성에 대한 자치 단체의 설득 부족	통합논의 과정의 강제성	모름/무응답
전체		(500)	37.9	30.4	14.1	2.8	14.8
연령별	19-29세	(68)	47.5	20.9	21.8	3.9	5.9
	30대	(72)	58.4	21.6	9.4	1.6	8.9
	40대	(91)	39.8	42.2	12.4	1.8	3.9
	50대	(97)	34.8	40.7	14.0	0.9	9.6
	60세 이상	(172)	26.3	25.7	13.9	4.5	29.6
지역별	목포권	(253)	37.1	38.0	14.4	2.8	7.6
	서남해안권	(247)	38.7	22.5	13.7	2.8	22.2
직업별	농/임/어/축산	(92)	30.3	32.0	18.6	4.5	14.6
	자영업	(57)	36.3	46.3	10.3	0.0	7.1
	블루칼라	(40)	38.9	32.0	12.9	9.5	6.7
	화이트칼라	(96)	43.7	43.9	7.3	0.8	4.2
	주부	(122)	42.0	16.0	12.7	3.0	26.3
	학생	(40)	50.6	19.7	26.2	0.0	3.5
	무직/기타	(47)	22.8	26.4	17.8	3.5	29.5
	모름/무응답	(5)	19.6	16.3	16.3	0.0	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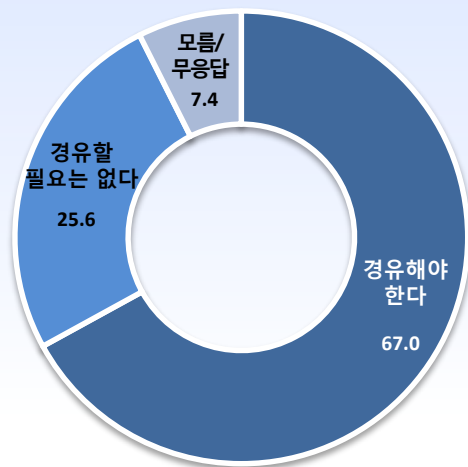
# IV. 서부권 현안 관련

## 7.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에 대한 의견

-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에 대해, '경유해야 한다'가 67.0%로, '경유할 필요없다'는 의견(25.6%)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서부권의 주요시설인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KTX 노선 연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큰 공감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됨.

✓ '경유해야 한다'는 의견은, 50대(74.9%), 자영업(78.7%) 계층에서 특히 높았으며, '경유할 필요없다'는 30대 미만(19-29세 34.5%, 30대 32.5%), 학생(40.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N=500, %)



구분	사례수	낙후된 서남 경제와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경유해야 한다	무안공항 경유시 소요 시간이 길어 지는 문제가 생기므로 경유할 필요는 없다	모름/무응답	
<b>전체</b>	<b>(500)</b>	<b>67.0</b>	<b>25.6</b>	<b>7.4</b>	
연령별	19-29세	(49)	54.6	34.5	10.9
	30대	(54)	65.4	32.5	2.1
	40대	(68)	70.0	27.0	3.1
	50대	(72)	74.9	22.5	2.6
	60세 이상	(127)	66.6	20.1	13.3
지역별	목포권	(187)	67.0	27.4	5.6
	서남해안권	(183)	67.0	23.7	9.3
직업별	농/임/어/축산	(68)	72.0	22.2	5.8
	자영업	(43)	78.7	21.3	0.0
	블루칼라	(30)	66.1	26.7	7.2
	화이트칼라	(71)	71.6	28.4	0.0
	주부	(91)	62.3	26.1	11.6
	학생	(29)	49.6	40.9	9.6
	무직/기타	(35)	65.4	17.1	17.4
	모름/무응답	(4)	31.4	16.3	52.3